문화 · 정서 간극 극복 비지땀

interview 한국 대표 불교詩 영역 출간 노저용 교수

중견 영문학자가 근현대 불교 서정시인의 대표작품을 영문으로 번역한 책을 발간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Korean Buddhist Poems, From Han Yong-un to Cho Choung-Kyun>(영남대학교출판부)의 저자인 노저용(사진) 영남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노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계간 <서정 시학>에 한국의 대표적인 근현대 시인 가운데서 불교적이거나 선적인 색채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시 작품을 영역(英譯)해 연재를 했다.

한용운 김달진 서정주 등 '서정시학'에 소개된 시인 12명의 작품 112편 영어로

이름만 들어도 친숙한 만해 한용운을 비롯해 김달진, 서정주, 조지훈, 오현 스님, 정현종, 고은, 황동규, 오세영, 이성선, 최동호, 조정권씨의 작품을 집중 소개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계간지 <서정 시학>에 연재했던 12명의 한국 대표 불교 시인들의 작품 가운데서 처음으로 번역한 112편을 단행본으로 역은 것이다.

"연재가 끝나고 다시 영역한 시를 보았을 때 부족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을 수백 번도 더 고쳤고 그러다 보니 퇴고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네요."

노 교수는 그동안 경상북도의 문화재 안내판을 모두 영역했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자문위원으로 영문 번역을 전담하는 등 번역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전문가 중의 한명이다. 그러나 노 교수는 이번에 영역한 불교시가 평생동안 번역을 한 자신에게도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토로했다.

"번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불교 문화권과 영어 문화권의 언어와 사고방식이 달라 우리의 것에 상응하는 영어 표현과 어휘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역사적 배경, 사상 등을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전달할지 항상 고민했고 그 과정은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문화 , 정서를 영어로 바꾸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끔 바꾸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된 12명의 작품 가운데 노 교수는 오현 스님의 '달마도'가 가장 번역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불교적 지식이 부족했고 스님이 자신의 불교적 삶을 시로 노래한 작품이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것. 다행히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과 인연이 있어 며칠 동안 토론을 하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일화도 소개해 주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시인들의 작품을 영역한 5년여 동안 노 교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픔을 겪었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효도가 불교시를 잘 영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책의 첫 페이지

우리 고유 문화와 정서 영어로 표현하는 일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

에 "어머니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To the memory of my mother Lim Gye-saeng, 1911~2003)"라는 헌정사를 쓰고 책이 발간되자마자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 책을 올렸다며 노 교수는 눈물을 훔쳤다.

1948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노 교수는 부산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T. S. Eliot and The Criterion>(1999, 영문판), <Action Francaise Condemnation & Other Essays>(2003, 영문판) 등이 있고 역서로는 데릭 월콧(Derek Walcott)의 장편 서사시 <오메로스(Omeros)> 등 다수가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발간

故 심재룡 교수, 인물 · 사건별 정리

고려시대 불교사와 사상을 인물과 사건별로 정리한 책이 발간됐다. 고인이 된 심재룡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그의 제자들이 <한국철학자료집-삼국과 통일신라의 불교사상>에 이어 <한국철학자료집-고려시대의 불교사상>을 발간했다.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서정형 연구원은 "불교학자와 일반인 모두가 한국불교학의 원전을 체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출간 동기를 밝혔다.

이 책은 당시 사상적으로 중요 사건과 인물을 선정하고, 관련 문헌 가운데 중요 내용을 발췌해 해설을 덧붙여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는 것이 특징. 기존 고려시대 불교 자료집 대부분은 한문 원문을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고 해설, 주석이 첨부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책의 구성은 고려시대 종파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화엄과 천태사상(균여, 의천), 정혜결사와 수선사의 선사상(지눌, 혜심), 백련결사와 천태사상(천책, 보환), 고려불교계의 역사의식(일연, 각훈), 임제선과 여말의 선사상(보우, 혜근), 고려대장경의 조판 등과 관련된 사건과 인물별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노병철 기자

'지식기반 사회와 불교생태학'

불교문화연, 국제학술대회

국내외 21명의 불교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 · 생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은 동국대 건학 100주년을 맞아 '지식기반 사회와 불교생태학'이란 주제로 5월 25~26일 양일에 걸쳐 동국대 중강당과 90주년 기념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총 5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국내학자 12명과 외국학자 9명이 참여한다.

분과별 주제와 발표자를 살펴보면 제1분과에 '지식기반 사회와 환경문제'를 놓고 독일 본 대학 폴 블렉 교수 외 3명이 발표를 하고 제2분과 '불교생태학과 서구사상'에서는 순천대 안옥선 교수 외 4명이 제3분과 '지식기반 사회와 미래'에서는 고려대 양형진 교수 외 1명이 논문을 발표한다. 또 제4분과와 제5분과에서는 '불교생태학의 학제적 접근'과 '미래사회의 평화와 불교생태학'이란 주제를 놓고 영국 런던대 데미안 케원 교수와 동국대 박경준 교수를 포함해 5명이 그리고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스님과 미국 하버드대 도널드 스웨러 교수 등 3명이 논문을 발표한다. (02)2260-8508 노병철 기자

보조사상연, 월례학술대회

'신라미륵…' 등 이색 논문 눈길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5월 20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69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송광사 강원 강사 무애 스님의 '근본불교와 선불교의 교육론 비교' 금강대 최종석 교수의 '신라미륵사상과 첨성대' 연세대 서대원 강사의 '<해심밀경>의 삼자성 고찰' 등이 발표된다. (02)733-5911

특히 최종석 교수는 "첨성대는 천문대뿐 아니라 우물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우물은 곧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용신신앙(미륵신앙)과 관련이 깊다"며 "신라불교가 귀족일변도가 아닌 서민 중심의 용신신앙이 복합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중표)는 5월 13일 서울대 인문대학 8동에서 2006 춘계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생명 조작에 관한 연기적 관점' 박서연 동국대 박서연 강사의 '균여의 십층탑 비유' 운문사 중강 명법 스님의 '북송시대 문의 부활과 불교의 과제' 서울 불교대학원대학 정준영 전임강사의 '초기불교 해탈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9>

효리

요즈음 한류가 동남아를 위시해서 일본, 심지어 아랍문화권까지 유행하고 있다. 한국 사람의 춤, 음악 솜씨의 탁월함 내지는 한국 문화에 반영되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인간관계가 타 문화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같은 한류의 중심에 이효리라는 가수가 있다.

효리를 외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백중 백 사람이 '쇼리'라고 발음한다. 아무리 효리라고 반복해도 그 사람은 쇼리라고 듣는 것이다. 필자가 알아낸 가장 좋은 방법은 '히요리'라고 한 자 한 자씩 따로 발음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히요리, 빨리 발음해서 효리라고 따라서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듣는 소리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 소리만을 듣는 것이다. 외국인들에게는 '효'라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효'라고 발음하더라도, '효'라고 들리지 않는 것이다. 비록 과학적인 공기의 떨림,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달팽이관, 섬모와 연결된 신경의 화학적 반응이 꼭 같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외국인이라면 백발발중 '쇼리'로 발음 경험으로 알고 있는 소리만 들을 뿐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소리의 특징을 수학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빛과 마찬가지로 소리 역시 파동이므로 파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주파수, 크기 등을 분석한다. 이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심장의 이상을 파악하기도 하고 파동의 반사, 간섭 등이 다른 물질에서 다르게 일어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잠수함을 추적하기도 하고 석유를 탐사하기도 한다.

물론 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초음파 탐지기 역시 우리 몸 안의 다른 물질에 다르게 반사하는 소리의 성질을 이용한 기계이다. 최근에는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분석해서 이상을 찾아내는 과학적 방법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미세한 소리를 탐지하는 기술, 그리고 잡음을 제거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심장의 동맥, 심실 그리고 심실 사이 문의 이상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맥을 짚어서 병을 진단한 옛 동양 의사들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 몸에서 전해지는 파동을 느낌으로써,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것이다. 현대과학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 인간의 감각에 의존한다는 점이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효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지 시스템의 한계 내에서 듣는 방식대로만 듣는 것이다.

부처님은 여섯 가지 인식의 경로를 육입이라고 말했다. 소리의 경로는 귀다. 인식 작용에 의해서 몸과 머리가 그려내는 소리의 세계는 참으로 오묘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려내는 소리의 인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이 만들어 낸 한 가지 방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가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없음', 즉 '무 안이비 설신의'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첫 발걸음인지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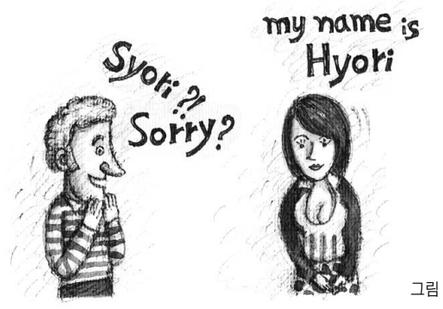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아직도 신문광고에만 매달리십니까? 불교도 인터넷 시대! 광고도 인터넷 시대!

http://ad.buddhapia.com 주소창에 "애드부다피아" 만 치세요.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등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주요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모회사인 국내 최고의 불교신문인 현대불교신문사와
불교포털사이트인 부다피아와 붓다뉴스와 연계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공략을 함으로써 귀사의 소중한 광고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애드부다피아로 접속하세요!!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붓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광고접수문의] http://ad.buddhapia.com / admaster@buddhapia.com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